

교회 성장의 주역들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개역, 사도행전 11:19~26]

누가 교회를?

예 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몇 군데나 세우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당부만 하셨지 자신이 교회를 세운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시고 자신은 그냥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에 후일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주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합니다. 스테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테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반 혼자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 그 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는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붙잡혀 가서 용감하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19절은 그 때 도망간 사람들이 한 일을 가리킵니다.

죽느냐 사느냐? 아니다, 복음을!

박해가 일어나면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 거기서 죽어야 합니까? 아니면 도망을 가야 합니까? 한국에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교회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간 사람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할 상황이면 도망을 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도망을 가야 하느냐 살아남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이유는 어떤했든지 간에 도망을 가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19절 끝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라고 표현한 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외국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아 있어야 하느냐 도망가야 하느냐 이 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살아야지요. 살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가서 죽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직장따라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바뀌어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교회를 옮기겠느냐 싶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이 멀리 옮겨지거나 형편이 바뀌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야 할 상황이 되면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느냐 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도망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살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때부터 대대로 여기 살았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직장에 여기에 왔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늘나라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드디어 교회가...

이들은 외국으로 도망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당연히 그리로 모였습니다. 교회도 없던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 하시고 곳곳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자기 동족에게만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못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그 짐승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저런 부정한 것들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세 번이나 보고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 날, 여러 일을 거치고 난 뒤에야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정하다고 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어서 도망을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거룩한 사고뭉치들!

20절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이, 이름도 없는 몇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디옥은 육지에 있고 구브로는 조금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섬사람이에요. 구레네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바다 건너 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금 말로 하면 리비아쪽 되는 곳입니다. 이 분들이 흑인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한국말로 하면 까무잡잡한 촌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는 섬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아프리카의 흑인 비슷합니다. 우리말로 무식한 촌사람 몇이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가서 며칠 묵고 돌아오니 유대인들이 몹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몹시 책망을 받았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이 촌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고 친 것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나서서 했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인간도 아니라 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촌사람들이고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처럼 직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무식한 촌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건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전했더라는 말입니다. 사고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로선 당연한 일 같아 보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참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큰일은 잘 못해요. 그냥 착하게 자기 가정 잘 꾸리고 착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일 하는 애들 중에는 어릴 때 어른들 말씀 잘 안 들었던 애들이 더러 있습니다.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욕심 많은 애들 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대형사고를 치기도 합니다만 이런 아이들이 잘 자라났을 경우에는 아주 큰일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아이도 좋은 아이입니다만 말 잘 듣지 않고 고집 센 아이를 너무 나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하면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흔히 하는 말로 '똥고집' 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고집부리는 아이는 안됩니다. 분명한 생각이 있어서 고집부리는 아이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몇 사람들이 일을 저질렀는데 사고 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 전해야겠다는 이 열정 때문에 그 당시의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사고를 쳤는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느냐며 논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으면 비록 하는 일이 서투르고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생각이 짧고 집사가 저래도 되나 싶은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중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학생을 한 명을 전도해서 왔는데 소위 꼴렁꼴렁한 애를 한 명 데려온 겁니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고 소년원에도 갔다 오고, 집에서도 버린 아이를 어느 분이 데려왔어요. 이 학생이 교회에 와서도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담배 피우는 건 예사입니다. 그런 아이를 전도해오면 안되지요? 교회 이미지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착하고 말 잘 듣고 잘된 애만 데려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죄인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꼴렁꼴렁하고 집에서도 버리고 학교에서도 버린 애를 교회에서도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데려와야죠. 데려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한 아이로 만들어야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니깐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안 그러지만 교회에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끔 담배 한대씩 피웁니다. 어느 날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야단을 쳐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피우던 애를 데려왔는데 어떡합니까? 스스로 담배를 끊고 착한 학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죠.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은단을 사다줬습니다. 애들이 담배 피우면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더구나 교인들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아요. '몰래 숨어서 한 대 피우더라도 은단이라도 씹고 와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표가 덜 나지 않겠나' 그런 뜻이었습니다. 책망하고 야단치기보다 이런 아이들도 교회에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생각하고 쓸 만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죄인일수록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꼴렁한 아이가 교회를 와보니 다른 곳에 가면 전부 쫓아내고 인간 안될 놈이라고 구박을 주는데 교회는 대접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꼴렁꼴렁한 아이가 재미를 내서 교회에 잘 옵니다. 진짜 재미있는 것은 이런 아이들은 의리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그런데 꼭 자기같은 애들만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고치고 쫓겨나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떼를 지어 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피우고 콩초 처리를 잘 안합니다. 아무데나 버려요. 그래서 무슨 연고인지 모르는 분들이 제직회 때 난리를 친 겁니다. 어떻게 돼서 교회 안에 담배꽂이가 많이 떨어져 있느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요즘 담배 피우는 것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 데려올 아이가 없어서 저런 애들을 데려왔느냐고 야단칠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 아이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보듬어 주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심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저리고 있는 것이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름답게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교회서 담배를 피우냐?' '복장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저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전도해서 데려온 것이 사고 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고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은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어쨌거나 안디옥에 도망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당시에 나쁘게 생각하면 이방인들, 인간 같지도 않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교회가 된단 말이나며 책망할 가능성도 충분이 있던 때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유대인 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했나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깔렁깔렁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보다 더 심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길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던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주변에 조금 잘 되는 교회가 있거나 어느 교회가 부흥이 돼서 잘 한단다 하면 옆에 교회들이 서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한국교회가 교회들마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느 분이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혹시 잘못된 거 없는지 흠잡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는 과거에 이단 시비에 휘말렸던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니 이단이 아닌가 지켜보며 한때는 이단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기에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섰다는 그 소식을 듣고 책망하거나 잘못된 것 아니냐 하기보다 바나바라는 귀한 지도자를 파송해서 그 교회가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되겠나 한번 보자' '그런 사람 전도해서 교회가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믿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시작했다면 누구라도 밀어줄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 파송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귀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때 파송 받아 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 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는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졌는데 초대 교역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본문에서는 착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4장에 보면 '권위자'라고 합니다. 권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잘하던 착한 사람이었던 말입니다. 바나바는 스테반처럼 용감하게 복음을 외치던 사람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받고 예수만 믿으면 다 된 걸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다가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만 출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교회만 갔다오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백성 아닌가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를 때는 성경을 잘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안디옥에서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24절 끝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 잘 가르치는 바나바가 있으니 큰 무리가 더욱 주께 돌아오더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을까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최초로 외국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거기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에 바나바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일거라 생각하고 보냈을 것 같아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겠습니까? 온유하고 착한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화를 잘 안 내요. 참 온유합니다. 모두가 잘 하자고 하는 일이지만 성질내고 짜증내고 또 빠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갈 좋은 지도자는 착하고, 남을 생각하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바나바가 그 일에 적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도들이 있음에도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 훌륭한 신앙인이진 않습니다. 때로는 험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빠졌다가 한참 안 나왔다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 낼만도 한데 잘 참아가면서 교인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꼭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4절 중간에 '이에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이 '이에'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란 뜻이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그랬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는 말입니다. '이에'라는 단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에'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나요? 좋은 교인이 있어야 하나요? 둘 다 맞습니다. 어느 한 쪽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잘해야 합니다. 양쪽이 다 맞으면 교회가 잘 커갑니다. 섬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밤낮 말씀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에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와서 잘 섬겨나갔더니 교회가 그렇게 커지더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되지 않습니까?' 한다면 설령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해도 자꾸 그 말을 하는 것은 교회가 자라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반대로 목사님이 자신이 부족한 줄도 모르고 밤낮 '교인들이 이 모양이니 교회가 안 커지...' 이것도 옳은 것 아닙니다. 교인들은 무조건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협력하고 또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교인 같은 이런 교인이 어디 있나!'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기에서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오기 전에 그저 복음에 뜨거워서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들의 역할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도 합세

그런데 열정을 쏟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 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가르치다보니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적절한 사람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바나바에게 딱 떠오

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 사람이 확 변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반발했는지 모릅니다. 이리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사울을 고향에 돌려보내 버립니다. 고향에 가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정황으로 추측하건데 적어도 십여년 정도, 십년 이상쯤이라 추측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나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왜 군에 안 가려고 야단인지 아십니까? 한참 뜨고 있을 때에 군에 2-3년 다녀오면 인기가 실력이 다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군에 잠시 다녀오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사울이 고향에 가서 그냥 파묻혀 있었던 말입니다. 고향에 십여 년이나 파묻혀 있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울을 잊어버리고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고향에 파묻혀 지내고 있는 사울을 불러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회심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사도들에게 인사시켜준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해도 제자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사울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제자들을 만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공이 굉장히 큼니다.

그렇게 사울을 불러다가 이 교회에서 둘이 같이 2년간이나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를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된 것도 안디옥 교회 탓이고, 사울이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된 것도 안디옥 교회가 그 사울을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바나바가 그를 인도한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키웠습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키웠습니까? 같이 커간 것입니다. 교회가 커가면서 바나바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고 사울도 위대한 전도자로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혹은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빛된 삶을 살았으면 백성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전부 칭송을 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안디옥에서는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런 이름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나쁜 의미로 부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라 부르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그건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멋지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라 하면 참 좋은 말이 됩니다. 멋지게 산 우리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 하면 굉장히 나쁜 말이 됩니다. 그건 전부 우리에게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만 90년대쯤엔 나라에 대형사고가 터지면 전부 장로님, 권사님들이 불려가곤 했습니다. 권사님 세 분이 나오셔서 텔레비전 중계하는데 거기서 거짓말한 것 아시죠? 모피사건인가 그럴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텔레비전 프로를 본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속 터져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 내 성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 성질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내 성질대로 가는 것이 교회 안에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 참 안 고쳐져요. 내 고약한 버릇, 성질...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깨어져야 하는데 안 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적어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랬다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평생에 고쳐지지 않은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며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말씀 한마디가 21절에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르치고 열심히 말씀대로 잘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디만 성경은 명확하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교회를 키웠다는 말인가요? 주의 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자라났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책이 누구의 일을 기록한 것인지 잘 보시면 사도들 뒤에서 그렇게 되도록 코치한 분이 따로 계십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그것을 막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길을 막기도 하고, 가계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라 하기보다 성령이 하신 일을 기록했으니 '성령행전'이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 교회를 키운 사람,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자가 된 사람 많이 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커가는 것은 분명히 주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니까? 누가 교회를 키우니까? 누가 교인을 교인답게 만들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부분에서 일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답은 주의 손, 성령이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절대 한 두 사람, 누구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하나도 세우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 위에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뒤에서 이것을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꼭 그 일을 시키실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과 동역하시는 하나님

노아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전부 다 쓸어 없애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다 없앨지라도 한 사람은 남겨야 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 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려면 모두 악하다고 해서 모두 다 없앨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할 때 꼭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을 누구에게 보낼까 하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찾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할 때 꼭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도 아니요, 바울도 아닙니다. 위대한 바나바도 바울도 아니라 이름도 안 나오는 저 어느 시골 촌사람들이 사고친 그 일이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는데 누구를 통하여 할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요, 훌륭한 이름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저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겠다고 성령께서 걱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은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크게 자란 인물, 안디옥 교회가 낳은 교회의 아들인 셈이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바나바가 나오고 바울이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는데 일등공신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모두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 때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고몽치,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포남 교회의 부흥을 바라며

세월이 지난 뒤에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옛날의 부흥을 뛰어넘을 영광스런 날이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이 교회의 역사를 적을 그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때에 이 교회를 눈물로 지키고 있었던 누구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새겨질 날이 올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잘 키워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나바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보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름도 없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애썼던 이 사람들 덕분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때 교회가 비어 있을 때 제가 몇 번 왔다갔다 기록해 주십시오. 그 훗날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